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김 혜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이 정 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상대자가 있는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실태 및 결혼준비정도가 어떠하며,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현재 도시지역(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며, 결혼적령기의 미혼남녀로서 2002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는 김혜선·신수아(2001)가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이용하였고, 배부된 400부 중 부실기재 된 것을 제외한 393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 t-test,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준비실태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이 5점만점에 3.75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 중에서 결혼관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3.86),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3.75), 부모로부터의 독립(3.73), 성숙(3.71),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3.65),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3.41)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정도는 전체평균이 4.0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혼당사자간의 관계측면이 4.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측면이 4.19점, 실제결혼준비 측면이 4.10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측면이 3.6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건강(4.55), 상대방에 대한 이해(4.54)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의례준비(3.49), 교제기간(3.33), 연령(3.23)에 대한 결혼준비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준비실태를 살펴보면,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은 교제기간이 길수록, 종교가 불교일 때 높게 나타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애정 및 성에 대해서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천주교의 경우 다른 종교보다 결혼관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 및 친구에 대한 이해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종교가 불교일 때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 및 갈등해결 능력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생이 무직 및 기타직업에 비해, 교제기간이 1-2년 사이가 1년 미만이나 2년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교·무교 및 기타종교가 기독교·천주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준비정도를 살펴보면, 실제결혼준비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교제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결혼준비정도는 비교적 높았으며, 결혼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비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